

# 이복현 금감원장과 PF 구조조정



이복현  
西村브리핑

10월이면 반드시 생각나는 노래가 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가수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다. 평소에는 존재감 없는 노래지만 10월의 마지막주에 대폭발하는 노래이기도 하다. 올해도 주요 라디오 채널 DJ가 한번쯤은 꼭 틀어주고 있다. 이 노래는 연인과의 이별을 회상하며 가슴 아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과 부동산업계에서는 어쩌면 이 노래를 통해 잊지 말아야 할 기억들을 상기하는 효과도 있다. 부동산, 금융쪽에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이름이 떠오르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2년전 10월, 자본시장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 레고랜드 사업을 추진하던 강원도 공기업의 채무불이행 사태로 시장에 큰 충격이 나타나고, 금융시장 전반에 불안감이 크게 증폭되었다. 급기야 부동산 투기 열풍을 타고 급작스레 증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으로 위기가 확산되며 매달 위기설이 끊이지 않았

다. 중소건설사들이 연이어 부도가 나고, 수십만명의 건설 실업자가 양산되었다. 무리하게 PF 대출에 관여한 은행과 증권사, 저축은행, 부동산 신탁사들이 곤욕을 치르며 PF발 금융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 때 '구원투수'로 전격 나선 것은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도 아닌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끄는 금감원이었다. 신속하게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이에 따라 모든 금융권역에 대해 평가한 뒤 옥석을 가려서 부실사업장을 정리하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진행했다. 사실 금감원의 PF 대책은 PF 구조조정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원래 구조조정은 많은 고통을 수반하는 쉽지 않은 작업이다. 하지만 긴밀한 PF 구조조정 작업으로 위기를 단숨에 잠재웠다. 이복현 금감원장 덕분에 부동산 관련 금융시장은 지금까지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진두지휘한 구조조정 작업은 역대 가장 성공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 성공요소를 보면 첫째 타 이밍이다. 통상 구조조정은 위기가 발생한 뒤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지만 이번은 달랐다. 선제적으로 치고 나간 것이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왜

냐하면 시장의 부담과 반발이 있기 때문이다. 이 금감원장의 강한 추진력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두번째는 메시지 관리다. 자칫 저항이 예상되는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에 대해 일관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한편으로는 업계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노력한 결과 반발을 최소화하며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이다.

세번째 체계적인 준비와 진행이다. 업권별로 상이했던 PF 평가 기준을 새로이 정비해 PF 부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전 권역에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장의 직설적 화법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기도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PF 구조조정은 이복현 금감원장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된다. 자칫 금융위기로 전환될 수 있는 어려운 시기에 적절한 감독과 대응으로 시장을 안정화 시켰다. 그 성과는 대단하다. 이제는 한시적인 정책이 아닌 건전하고 안정적인 금융 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한국 경제도 금융산업도 크게 발전할 수 있다.

l/jnh@metroseoul.co.kr

# 삼성과 인텔, 체면 대신 재기발랄함으로



김서현  
(산업부)

주요 기업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 수순 밟고 있다. 이번 3분기 실적결과도 또한 번 전세계 산업계가 'AI'를 키워드로 역동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물론 호실적 잔치 속에서 우울한 기업들도 있다. 사장의 사과문까지 게재한 삼성전자와 오는 11월 초 발표를 앞둔 인텔이다.

두 기업은 푸른 로고 만큼이나 상황도 처참한 실적 부진의 배경도 닮았다. 주력 제품인 반도체의 기술혁신 실패로 인한 인공지능(AI) 생태계에서의 낙오, 파운드리 사업의 부진 등이 두 기업의 실적악화를 불렀다. 서로 다른 접이라면 미국의 대(對) 중국 제재로 받은 영향 수준 정도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두 기업의 충격적인 실적 부진의 영향을 다른 무엇도 아닌 '기업문화'로 지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달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 등에서 서울 서초구 삼성타운의 주요 의사결정권자까지 오르내리는 보고를 둔 불만이 불꽃 터지듯 쏟아졌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삼성전자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는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이 정작 최첨단 기술에 완전히 문외한이어서 실무진이 그들을 위한 '초등학생 수준'의 보고서를 쓴다는 주장이었다. 도전을 통한 혁신 대신 자본논리와 법률 리스크를 바탕으로 한 보수적인 판단이 오늘날의 삼성전자라는 게 증언이다.

인텔 또한 2분기 보수적이고 경직된 기업 문화가 폭로됐다. 지난 2022년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재기를 위해 영입된 림부

탄 CEO가 8월 인텔을 떠나며 남긴 말이 폭풍을 일으켰다. 림부 탄 CEO는 인텔이 사회에서 사임하며 "인텔의 위험회피적이고 관료주의적인 문화에 실망했다"는 말을 남겼다.

때로 위험도 높은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대대적인 투자보다 자신있는 영역에 힘을 쏟으며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기업 경영을 추구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기술 선도를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지금, 충격적인 실적부진을 드러낸 두 기업의 보수적인 기업 문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종종 단시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스타트업이 세상을 놀라게 한다. 그렇게 성공한 스타트업은 영웅한 아이디어라도 '일단 해보자' 시도한 게 성공의 열쇠라고 말한다. 삼성전자와 인텔이 배울 일이다. 거대 기업으로서의 체면 대신 스타트업의 재기발랄함이 필요한 요즘이다.

/seoh@

오늘의 운세 11월 1일 (음 10월 1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마음은 바빠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 48년생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정에 충실. 60년생 기다린다고 기회는 오지 않으니 내가 먼저 다가가라. 72년생 말만 잔뜩 시끄럽다. 84년생 이사는 무리하지 말고 형편에 맞춰서 해야.



37년생 사업이든 직장이든 성실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 49년생 삼라만상 계의 이치가 있으니. 61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리니 좋은 일. 73년생 함께 하려거든 상대를 의심하지 말고 포용해야. 85년생 흥을 보기보다는 협조를 해주는 것이 도리.



38년생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지 마라. 50년생 상처는 나어도 흉터는 남는다. 62년생 흐지부지될 수도 있으니 확실한 문서로 남겨라. 74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86년생 마음을 좋게 먹어야 주변에 적이 없다.



39년생 가까이 있다 해서 소홀히 하면 마음을 다친다. 51년생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63년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75년생 사람이 많으니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87년생 삶의 질은 나의 선택으로 결정된다.



40년생 십 년 묵은 체증이 단번에 해소된다. 52년생 돌아서 가는 길이 여유를 준다. 64년생 흐르는 물처럼 내려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해결. 76년생 희망은 만들어 가는 것이니 실행하자. 88년생 구름이 하늘을 가리니 일을 늦추는 것이 상책.



41년생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 53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으니 헛소문에 신경 쓰지 마라. 65년생 연인에게 지나친 관심은 상대를 지치게 한다. 77년생 바라던 곳에서 소식 온다. 89년생 말은 하기 쉬우나 주위 담을 수가.



42년생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각오로. 54년생 상호 의견을 존중해줘야 대접받는다. 66년생 약속이 겹칠 수 있으니 주의. 78년생 어렵다는 생각은 접고 있는 자신을 살피자. 90년생 가족에게도 주는 것도 과한 것보다 약간 모자람이 나을 것인데.



43년생 관리를 잘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55년생 간교한 속삭임이 많으니 굳은 의지가 필요. 67년생 후한 끝은 있어도 박한 끝은 없다. 79년생 나의 발전을 위해 준비하는 하루. 91년생 배우자와 격한 언쟁은 서로에게 피해만 줄 뿐.



44년생 의외의 이득을 본다. 56년생 상대의 단점을 건드리면 해가 되어 돌아온다. 68년생 계획 없이 일을 시작하다가 낭패. 80년생 자신의 학습 추이와 직장과정을 통해 보면 미래사가 예측될 것. 92년생 마음이 너그러우면 세상이 아름답다.



45년생 자고 나도 피곤이 풀리지 않으니 좀 쉬어야 할 때. 57년생 폭로보다는 다독이며 상생하는 게 좋을 것. 69년생 진인사대천명이라 했다. 81년생 흔들리지 않는 적당한 경쟁력은 발전의 중요한 요소이다. 93년생 말 만큼 금전 문제가 풀린다.



46년생 고생한 만큼 성과가 좋고 원하던 것을 이루어 내는 날. 58년생 내게는 이익으로 돌아온다. 70년생 사람을 믿는 것도 자산. 82년생 같은 경험을 했어도 아픔을 받아들이는 무게는 다르다는 것을 인지. 94년생 부모님께 효도하고 좋은 하루.



47년생 한발 물러서는 것도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다. 59년생 생각지 못한 일로 심신이 고달픈 하루. 71년생 현실이 힘들어도 내일을 생각하면 만족해야. 83년생 물이 들어오니 열심히 노를 저어 시작. 95년생 자기중심적 혼돈의 좁은 소견보다는.



## 김상회의四季 백세시대 운명학

바야흐로 백세시대다. 건강관리 잘하고 큰 병에 걸리지 않으면 백세를 사는 게 꿈이 아니다. 사주로 보면 오행이 고르게 있으면 대체로 장수하며 신왕하고 식상이 있으면 가난하지 않다. 장수 시대가 되면서 부정적인 부분도 자주 생겨나고 있다. 누구나 걱정하는 노후 빈곤이나 말년 고독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 빈곤이나 고독에 시달려야 한다면 오래 사는 게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운명을 볼 때는 인생을 길고 넓게 개괄적으로 보고 시기와 나이별로 세부적으로 보게 된다면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나 중요한 건 손실은 적을 것이다. 어느 시기에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어느 쪽으로 가야 일이 잘 풀리거나 막히지 않을지를 얻을 수 있다.

운세는 인생의 중요할 시기마다 변화에 변화를 거듭한다. 일을 도모하는 때와 기다려야 하는 때에 따라 움직이면 사는 게 편안하다. 노후는 길고도 길다. 나이 들어 재물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은퇴한 이후에 고독한 운세가 보인다면 일찍부터 자금 및 주변 관계 개선에 힘을 써야 한다. 어느 나이에 어떤 운세가 올 것인지 살펴보는 것은 삶의 내비게이션이다. 운명의 운세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방향은 살피지 못할지라도 잘살아간다면 다행이겠으나 고통스럽지 않게 살도록 이끌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양의 운명에 관한 학술은 범위가 너무나도 방대하고 심오하다. 그러기에 개체의 자아를 실제적 자신으로 보고 믿고 싶어 하며 좋다는 쪽으로 집착하기도 한다. 특히나 속칭 잘나갈 때 그러하다. 그럴 때 운명의 학습이 무용지물이 되니 미신이란 말 같지도 않은 용어가 튀어나오기도 한다. 이는 천만의 말씀이다. 자신의 팔자 운명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말을 쓰는 자신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4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45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책 출간

###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드의 열과정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4		1		8	3
5		3				
		4		9	5	
2	4		6	1		
				2	7	1
	8	7			2	
			8			7
4	3		5		8	9

4				6	3	9	1
2			1				8
				9		4	
7					1		
	2	4		1	7		
	6						2
	7		1				
8				6			5
6	2	4	3				9

1	6	8	9	2	9	2	8	7
9	2	7	8	6	1	9		
7	9	6	1	2	8	9		
9	1	7	2	8	9	6	8	9
8	2	9	6	7	6	1	9	2
6	6	2	9	1	9	8	7	2
2	9	6	8	9	7	6	2	1
2	7	1	6	6	2	9	9	8
6	8	9	1	9	2	7	2	6